


노동상담
 지금 클릭하세요

소식

[공지사항](#)
[성명·보도](#)
[기타 공고](#)

성명·보도

[보도자료] 박근혜 하야!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의 결과

작성일 2016.11.02 작성자 교육선전실 Views 2452

Attachment파일 다운로드 비상시국회의의1.jpg, 비상시국회의의2.jpg, 비상시국회의의3.jpg

보도자료

일시	2016년 11월 2일(수)	문의 : 민주노총 대변인 남정수 010-6878-3064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대표전화 (02)2670-9100 FAX (02)2635-1134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의 결과 브리핑]

박근혜 하야!

민주주의 쟁취! 불법 노동개약 원천 무효! 구조조정 폐기! 철도·공공파업 승리!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

일시 : 2016년 11월 2일(수) 오후 12:30 ~ 2:30

장소 :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의 결과]

○ 11월 2일(수) 오후 12:30부터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및 상근간부를 중심으로 조합원 등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근혜 하야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가 열렸습니다.

○ 비상시국회의는 당면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정세에서 전 국민이 요구하는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의 전 조직적 총파업 돌입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단위사업장 노조대표자들로부터 총파업 결의를 모아내기 위한 자리로 긴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 비상시국회의의 참가자 중 현장발언이 있었는데 ▶ 박근혜 퇴진을 위한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와 선언 ▶ 산별 및 단위노조 등 아래로부터 박근혜 퇴진 시국선언 및 시국행동 ▶ 불법 노동개약 폐기를 위한 철도노조의 장기파업 승리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연대투쟁 ▶ 박근혜 퇴진을 위한 범 국민운동본부 제안 및 구성 ▶ 박근혜 퇴진 및 한국사회의 총체적 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제시 ▶ 박근혜 퇴진 범국민적 요구에 미온적인 보수야 당에 대한 단호한 태도 ▶ 11월 12일 민중총궐기 성사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결의하는 내용이었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적극 수렴하기로 하였습니다.

○ 총파업 돌입 경로와 준비, 돌입시기 등 구체적인 총파업 실행계획에 대해서는 비상시국회의의 이후 진행되는 민주노총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은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확인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비상시국회의에 앞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임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를 비상시국회의에서 발표하였고, 민주노총 각 산별 및 지역본부 대표자들의 박근혜 퇴진 총파업결의 상징의식과 시국선언문 낭독으로 비상시국회의는 마무리 되었습니다.

비상시국회의의 참가자들은 11월 2일 오후 3시 서울역에서 진행되는 철도파업승리 결의대회에 참여하였습니다.

[첨부자료]

-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
- 시국선언문
-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대회사
- 비상시국회의의 사진

1. 민주노총 투쟁지침 1호

<기본 지침>

1.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박근혜 퇴진’이 전제되지 않는 현 시국에 대한 어떠한 해법도 국민 기간에 불과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박근혜 퇴진’을 전면에 내건 즉각적인 대중투쟁을 조직한다.
2.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박근혜 하야/퇴진 투쟁을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퇴진/하야’ 촛불집회 및 주말 집중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하며, 특히 11월 5일(토) 박근혜 하야 촉구 범시민대회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총력 조직한다.
3.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11월 12일 전국노동자대회와 민중총궐기에 조합원 20% 이상의 참여를 조직한다.
4. 민주노총 모든 가맹·산하조직은 지도부 지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투쟁을 확산시켜내어 실질적인 총파업 성사까지 총력 조직한다.

<현장 지침>

1.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은 박근혜 하야 요구와 실천투쟁 결의를 담은 시국선언문 발표와 시국대회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국선언문은 지역별 새누리당사 앞 기자회견 등을 통해 발표할 수 있도록 한다.
 - 가맹조직별, 업종별로 진행되는 시국선언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한다.
2. 현 정세와 민주노총의 과제에 대한 사업장별 현장토론을 진행한다.
 - 민주노총 교육지를 토대로 상집 이상 간부 필참 현장토론을 진행한다.
 - 교육지는 대자보 방식으로 식당, 휴게실 등 조합원이 많은 곳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한다.
3. 지역별로 진행되는 하야 관련 촛불문화제와 주말 집회, 도심 행진 / 현장 행진, 선전전 등에 조합원들의 참여를 조직하며, 사업장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실천행동을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2. 총파업 계획
 - 비상시국회의를 통해 확인된 박근혜 퇴진 정세에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요구됨을 확인하고 11월 2일 오후 6시 30분에 비상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투쟁계획을 토론했어 실행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2. 민주노총 비상시국회의의 시국선언문

민주주의 쟁취! 노동개악 원천 무효!
박근혜는 퇴진하라!

민주주의 쟁취! 노동개악 원천 무효!

박근혜는 퇴진하라!

가짜 대통령의 나라에 살았다.

박근혜는 비선 지배일당과 재벌이 내세운 우상이었다. 그 우상을 앞세워 저들은 우리를 밥이나 먹이며 사육할 개돼지라 불렀다. 통치자는 박근혜 인가, 최순실인가, 그들과 결탁한 전경련 재벌들인가! 이제 국민들은 알아버렸다. 국민은 속았고, 치욕감에 분노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대통령이라 부르지도 말자.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이 어거지로 만든 대통령이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 어린 생명이 세월호에서 수장 당했다. 21세기에 메르스 전염병으로 수십 명이 죽었다. 하지 말라는 노동개악으로 쉬우려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내몰았다. 한상균을 가두고, 공권력으로 백남기를 죽였으며, 사인조작을 노려 부검까지 하겠다고 달려드는 정권. 이 모두가 대통령이 아니었던 박근혜의 이름으로 벌인 짓이다.

박근혜 가짜정권은 헌법을 농단했다.

정부는 노동자에게 준법을 말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유린했다. 대한민국은 비선실세 재벌공화국이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재벌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최순실로부터 나왔다. 국민은 “무당의 나라”라고 개탄하고, “왕정국가도 못돼 신정국가”라고 조롱한다. 변명하지 말라. '하야'만큼은 최순실에게 묻지 말고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

외주화 국정-재벌 청부정책, 노동개악은 무효다!

의료민영화·철도민영화, 무상보육 파탄, 복지축소와 공공요금 인상, 노조파괴, 역사교과서 국정화, 일본군 위안부 굴욕야합, 호전적 대북정책과 사드배치 등 비선정책은 하나같이 국민피해로 향한다. 재벌에게 돈벌이를 노동자에게겐 해고의 죽음을 강요하는 구조조정은 악마의 정책이다. 자격도 실체도 없는 대통령의 모든 정책은 무효다. 재벌에게 돈을 받고 갖다 바친 청부정책, 쉬우려고 성과-퇴출제 노동개악도 무효다. 공공부문 성과-퇴출제 강제도입은 절차를 뒤흔들 뿐이다.

진정한 민주주의, 새로운 사회의 비전을 열어가자

민주주의 국가라면 벌써 뒤집어졌어야 한다. 그러나 음모와 공모가 가득한 정치가 방해한다. 우리는 정치권을 믿을 수 없다. 보수 야당은 하야촛불을 외면했다. 그들끼리 거국내각은 나눠먹기다. 탄핵도 한가하다. 축소 수사로 '하야' 민심을 잠재우려는 검찰의 선수 치기도 사기다. 우리는 '박근혜 퇴진' 이외에 그 어떤 방식도 기만이자 국민 무시로 규정한다. 당장 하야하고 다시 뽑자! 노동자 민중이 권력을 설계하자. 재벌과 극우권력, 그 추악한 집단들을 끝장내자! 시민들과 함께 사회 대전환에 나서자.

**우리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내리길 원한다.
우리는 총궐기와 총파업으로 일어 설 것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우리는 선언한다.**

하나. 이제 우리의 모든 역량을 박근혜 퇴진 투쟁에 집중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전국적 총궐기로 다시 촛불의 함성에 앞장 설 것을 선언한다!

하나. 노동개악 무효다. 철도-공공과 총파업 승리로 연대할 것을 선언한다!

하나. 그 누구도 구조조정 제물일 수 없다. 단결과 연대, 투쟁을 선언한다!

하나. 현장에서부터 일어서자! 거리로 행진하자. 우리는 행동한다!

**2016년 11월 2일
민주노총 비상사국회의 참가자 일동**

3. 최종진 위원장 직무대행 비상사국회의 대회사

먼 길 한걸음에 달려오신 동지들! 반갑습니다.

민심이 용광로처럼 들끓고 하루하루 격동하는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하야와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각층 시국선언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지지율은 10% 아래로 주저앉았고 하야와 퇴진 요구가 70%를 넘어섰습니다.

검찰과 정치권이 숨기고 가릴수록 민중의 분노는 더 커지고 있으며, 주범이 박근혜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하야하라! 지금 당장 퇴진하라! 새로운 대통령을 뽑자!

이것이 민심이고 민중의 요구입니다.

정세의 주도권은 이제 거리로 나온 노동자-민중들에게 있습니다.

동지들

지금은 단호한 투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야 할 시기입니다.

정권퇴진 대투쟁의 시기를 실기하면 필연코 반동세력의 반격이 시작될 것입니다.

몰아쳐야 합니다. 민중을 믿고 함께 거리로 뛰쳐나와야 합니다.

전국 각지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과 거리행진으로 전국적 항쟁의 불씨를 만들어 냈시다.

11월 5일 10만 그 이상의 범국민 박근혜 퇴진 촛불행진으로 정권퇴진 민주항쟁의 불길을 지펴 올렸습니다. 그 불길을 11월 12일 100만 민중의 총궐기로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을 끝장내는 대투쟁으로 이어 갑시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 대표자, 간부 동지들

민주노총은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을 역사적 과제로 받아 안고 씬 없이 투쟁해왔습니다.

2016년, 우리에게 불의한 권력을 내리고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1987년 민주노조 건설 노동자 대투쟁과 96-97년 노개투 총파업 이후 다시 찾아 온 항쟁의 시기이고 총파업을 요구하는 정세입니다.

노동자,민중을 짓눌러 온 불법 권력과 자본에 맞서 민중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총파업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쉽지 않은 결단과 결정이지만 두려워하지 맙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했습니다.

저 또한 저에게 주어진 책임과 역할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노총이 지금 있어야 할 자리는 촛불을 정권퇴진 민주항쟁으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가장 앞자리입니다.

우리가 역사와 민중이 요구하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면 촛불은 항쟁이 되지 못하고 사그라질 것입니다. 역사와 민중이 민주노총에 요구하는 모든 것을 받아 안고 총파업-총력투쟁에 나섭시다.

동지들!

긴박한 정세에서 마련된 비상사국회의입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결단합시다.

우리의 투쟁은 박근혜를 또 다른 인물로, 새누리당 권력을 야당으로 교체하는 투쟁이 아닙니다. 정치권력은 바뀌어도 자본권력은 대를 이어 부를 축적하며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퇴진 투쟁은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이 주물러 온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한 사회변혁 투쟁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아니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이 합작해 만든 모든 불법 정책은 원천무효이고 원상회복 되어야 합니다.

한상균 위원장을 가둔 반민주 악법과 노동자의 권리를 봉쇄한 노동악법, 국가보안법은 전면 폐기되어야 합니다. 보수야당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민중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세력화가 전면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의 투쟁과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열어젖히는 투쟁을 함께 시작합시다.

오늘 비상시국회를 통해 박근혜 퇴진을 열망하는 모든 민중들에게 민주노총이 살아있음을 보여 줍시다. 감사합니다. 투쟁!





List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민주노총 노동상담 1577-2260

부설기관 민주노총소개 오시는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고유번호 : 107-82-08139

Tel : (02) 2670-9100 Fax : (02) 2635-1134 Email : kctu@kctu.org

[민주노총 가맹조직 사이트](#)

[민주노총 지역본부 사이트](#)